# 大學章句 새겨보이

〔연재 제21회〕

權 五 達
편집위원

**대학장구 승전承前**

**01-04. 皆自明也 。**
結所引書, 皆言自明己德之意。

**01-04. 개자명야 。**
결소인서, 개언자명기덕지의。

**모두 스스로 자기의 덕을 밝혔다.**
《서경》을 인용하여 결론지었으며, 모두 자기의 덕을 스스로 밝혔다는 뜻을 말하였다.

**右傳之首章 。釋明明德 。**此通下三章至「止於信」, 舊本誤在「沒世不忘」之下。

**우전지수장 。석명명덕 。**차통하삼장지「지어신」, 구본오재「몰세불망」지하。

**이상은 전문傳文의 제일 첫번째 장章이다. 밝은 덕을 밝히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서부터 아래의 3장三章「지어신止於信」까지는 옛날 책에는 잘못되어「몰세불망沒世不忘」아래 놓여 있었다.

**02-01. 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
盤, 沐浴之盤也。銘, 名其器以自警之辭也。苟, 誠也。湯以人之洗濯其心以去惡, 如沐浴其身以去垢。故銘其盤, 言誠能一日有以滌其舊染之汚而自新, 則當因其已新者, 而日日新之, 又日新之, 不可略有間斷也。

**02-01. 탕지반명왈: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
반, 목욕지반야。명, 명기기이자경지사야。구, 성야。탕이인지세탁기심이거악, 여목욕기신이거구。고명기반, 언성능일일유이척기구염지오이자신, 즉당인기이신자, 이일일신지, 우일신지, 불가략유간단야。

**상商나라를 세운 탕왕湯王이 대야에 새겨놓고 항상 보면서 경계로 삼은 글에 말하였다.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하루하루 새롭게 해야 하며,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반盤은 목욕하는 대야이다. 명銘은 그 그릇에 스스로 경계하는 말을 새긴 것이다. 구苟는 진실하다는 뜻이다. 탕왕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깨끗이 씻어 나쁜 점을 제거하는 것이 마치 자기 몸을 목욕하여 때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그 대야에 새긴 것은 진실로 하루라도 오랫동안 오염된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마땅히 이미 새로워진 것을 이어받아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조금이라도 사이가 끊어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다.

**【주】◎탕왕湯王:** 중국 고대의 왕조국가 상商(은殷)나라를 창건한 왕으로서, 천을天乙·태을太乙·성탕成湯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이履이고, 천을의 시호가 탕湯이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시조 설契의 후예로서 14세에 해당하고, 주계主癸의 아들이다. 당시 하夏왕조의 걸왕桀王이 가혹한 정치를 하여 대부분의 제후가 유덕有德한 성탕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걸왕은 성탕을 하대夏臺에 유폐하여 죽이려 하였으나 재화와 교환하여 용서하였다. 탕왕은 현명한 재상宰相 이윤伊尹 등의 도움을 받아 부패한 여러 제후국 갈葛·시위豕韋·고顧·곤오昆吾 등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무도한 걸왕을 연속적으로 유융有헥과 명조鳴條에서 격파하여 하왕조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박뛰(지금의 하남성 상구현商丘縣)에 도읍하여 국호를 상商이라 정하고, 제도와 전례를 정비하여 30년간 재위하였다. 그가 걸왕을 멸한 행위는 유교에서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주왕紂王을 토벌한 일과 함께, 올바른 '혁명'의 군사행동이라 이르고 있다. 《서경書經》의 〈탕서湯誓〉편은 그때의 군령軍令이라 전한다. 한편, 온후하고 관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는 가뭄이 들자 자신을 희생으로 바치는 제사를 올렸으나,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비가 내려 그가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02-02. 康誥曰: 「作新民 。」**
鼓之舞之之謂作。言振起其自新之民也。

**02-02. 강고왈: 「작신민 。」**
고지무지지위작。언진기기자신지민야。

**〈강고〉에 말하였다. 「백성이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북치며 춤추게 하는 것을 작作이라 한다.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백성을 떨치고 일어나게 함을 말한다.

**【주】◎강고康誥:** 《서경》의 〈주서周書〉에 나오는 〈강고康誥〉편이고, 강고장康誥章 내용은 주나라 무왕武王이 그의 막내 동생 봉封을 위강숙衛康叔으로 봉하면서 훈계한 글이다. 이 내용의 앞부분은 무왕이 아우에게 하는 말이 이어진다. '오오! 그대는 나의 어린 아우로서 그 맡은 직책이 크다. 왕이란 직책을 받아 은나라의 백성을 보호해야 하고, 또한 천명으로 물려받은 주나라 왕실을 도와야 하며, 백성이 새로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이! 여유소자, 내복유홍。왕응보은민, 역유조왕택천명, 작신민已! 汝惟小子, 乃服惟弘。王應保殷民, 亦惟助王宅天命, 作新民)'에서 인용한 것이다.

**02-03. 詩曰: 「周雖舊邦, 其命維新 。」**
詩, 大雅文王之篇。言周國雖舊, 至於文王, 能新其德以及於民, 而始受天命也。

**02-03. 시왈: 「주수구방, 기명유신 。」**
시, 대아문왕지편。언주국수구, 지어문왕, 능신기덕이급어민, 이시수천명。

**《시경》에 말하였다. 「주周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하늘의 뜻은 새롭게 하여 유지되었네.」**
시詩는 《시경詩經》의 〈대아大雅×문왕文王〉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주나라가 비록 오래되었으나 문왕에 이르러 그 덕을 새롭게 하여 백성에게 미치게 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천명을 받았다는 말이다.

**【주】◎《시경詩經》:** 중국 최고最古의 시집이다. 황하黃河 유역의 여러 나라와 왕궁에서 부른 시가詩歌 305수首를 수록한 것이며, 《서경書經》·《역경易經》·《춘추春秋》·《예기禮記》와 함께 유교의 경전 오경五經의 하나이고, 중국 13경의 하나이다. 서주西周 초기(기원전 11세기)에서 동주東周 중기(기원전 6세기)에 이르는 약 500년의 작품으로 추측되고 있다. 내용은 주왕조의 비교적 안정되었던 시대에 걸맞는 밝은 서정시로부터 혼란기를 반영하는 어두운 서사시까지 다채로우나 숫자로 가장 많은 것은 연애시이다(혼인시를 포함해서 전체의 약 반수). 따라서 《시경》은 유교 이전의 고대가요의 황금시대에 꽃핀 중국문학사상 희귀한 연애문학 또는 여류문학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 구두로 전승된 작품군을 어느 시기에 문자언어로 옮겨서 편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현존하는 《시경》은 한漢나라 모공毛公이 전한 것이라 하는 《모시毛詩》(그 주석이 모전毛傳)이며, 풍風·아雅·송頌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풍風(160수)은 제후국의 민간 가요를 주로 하고, 그 테마는 연애·결혼·생활·전쟁 등이라고 하는 노래의 장場을 세로축으로, 열정·기쁨·슬픔·희롱 등의 감정을 가로축으로 교차시켜 표시하면, 대개 이 좌표 안에 들어오는데, 80%는 연애·결혼의 기쁨·슬픔으로 집중된다. 아雅(소아小雅 74수, 대아大雅 31수)는 궁정·사회·전장·역사가 주무대이다. 귀족의 향연에서의 축복과 환영, 병사의 망향과 장군의 무훈, 망국의 한恨과 사회악에 대한 분노 등을 테마로 한 시와 주周나라의 기원과 건국을 노래한 서사시가 있으며, 그밖에 소아小雅에는 국풍적인 연애·결혼의 노래도 포함되어 있다. 송頌(주송周頌 31수, 노송魯頌 4수, 상송商頌 5수)은 제장祭場이 무대이며, 주로 조상에 대한 송가나 구복求福을 테마로 삼았다. 《시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대단히 난해한데, 문체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국풍의 기본적 시형은 사언四言의 리듬을 기조로 하고, 4행四行을 가진 연聯이 3회 반복된다. 이것은 전승동요와 닮은 형식이나 언어의 기교는 매우 높다. 《시경》은 이미 공자의 시대부터 지식인의 교양으로 쳤는데, 특히 공자는 말년에 제자들에게 악기樂記를 포함시킨 육경 가운데서 《시경》을 첫머리에 두고 가르쳤다. 즉 시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의 발로로서 정서를 순화시키고, 다양한 사물을 인식하는 전범典範으로서 더할 나위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시 300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사思無邪(생각하는 데 사악함이 없다)이다'하고, 아들 백어伯魚에게도 '시경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공부하지 않으면 벽을 마주보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면서 공부할 것을 일렀다. 《사기》에는 공자가 311편을 추렸다고 되어 있으나, 6편은 제목만 전한다. 그런데 《시경》의 최초의 뜻은 차츰 잊혀지고 진秦나라의 분서焚書를 거쳐 네가지 텍스트가 출현하였으나, 후한後漢 정현鄭玄의 주석(《정전鄭箋》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석의 체계성이 갖추어진 《모시毛詩》만이 살아남았다. 《모전》과 《정전》을 부연한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의

13면으로 계속

연세 참소망치과
CHAMSOMANG

원장 : 권병기權炳棋

경력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졸업,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전공의,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박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수, 한국쇼그린증후군환우회 자문위원, ENT임플란트 연구회 학술이사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72-5 보라매 샤르망 302호(당곡사거리와 보라매공원옆 롯데관악백화점과 중간지점

HP : 019-362-2708
Tel : 02-888-2872
Fax : 02-888-2874
e-mail : bingchi@hanafos.com